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 주의보

사업 승인 이전에 건축규모 등 홍보...추가부담 피해 공정위 “계약전 지자체 등에 확인 사실관계 따져봐야”

이사를 앞둔 A씨는 무가지 광고물에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달력 지역 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세대 수가 1500세대나 됐고 무엇보다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계약을 서둘렀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조합 측에서 홍보한 세대 수보다 아파트 건축규모가 축소돼 지정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했다.

또한 B씨는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안내책자에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을 했지만 이후 조합 측에서 사업비 상상을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을 받

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6일자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주택조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 조합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조합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미 인가가 났거나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조합도 있었다.

또한 조합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일어났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기 앞서 관할 지자체나 민원2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등에서 조합원 인가·사업 승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뒤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광고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주택조합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모는 2012년 26건 1만3293가구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4건 6만9150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이 2012년 대비 7배가 늘어난 22건 1만7929가구, 광주·전남을 포함한 지방은 4배가 늘어난 82건 5만1221가구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0.14 (-8.48)

금리 (국고채 3년) 1.62% (0.00)

↑ 코스닥 666.46 (+4.14)

↑ 환율 (USD) 1124.00원 (+5.70)



한전 에너지 스타트업 65개사 육성 본격화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올해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65개사를 발굴하고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18개사를 선정 한데 이어, 5월 2차 공모에서는 전국에서 15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3단계의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 47개사가 선정됐다.

한전은 선정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별로 2년 동안 2억원의 사업자금을 비즈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빛가람혁신센터내 입주 사무실 제공, 한전의 전력기술 분야 전문 멘토링과 창업전문 액셀러레이터 매칭을 통한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시장이 급속

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수출마케팅은 물론, 스타트업의 육성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은 혁신기술 개발의 저변 확대와 함께 청년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생태계성장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3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KOTRA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금융권 대출 증가폭 둔화

대출 조이기 효과...1분기, 9분기만에 3000억원대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제2 금융권의 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

7일 전업계(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카드사들이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1분기 말 기준으로 24조 616억원을 기록, 전 분기(23조6845억원) 대비 3771억원 늘어났다.

전 분기 대비 카드론 증가액이 3000억원대로 떨어진 것은 2014년 4분기(3554억원) 이후 9분기만에 처음이다.

이들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전체 카드론 대출의 90%를 차지한다.

이들 카드사의 1분기 카드론 취급액도 8조9976억원으로 전 분기(9조2655억원)보다 2679억원 줄었다.

이처럼 카드론 증가가 둔화된 것은 금융당국의 2금융권 대출 조이기 정책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자 대대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업체 등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0%를 넘기지 않고, 특히 1분기 대출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대출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도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9조3682억원을 기록, 전월 대비 118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5년 8월(426억원)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또 지난 1분기 신용협동조합의 전 분기 대비 대출 증가액은 8353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증가액(1조9468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상호금융의 증가액도 2조9830억원으로 전 분기(5조6323억원) 증가액의 반 도막이 났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경제전문가, 조대여고생 진로 멘토링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5일 조대여고 1학년 42명을 본점으로 초대해 진로체험 멘토링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멘토링 행사는 조대여고 학생들이 금융 분야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금융과 은행의 실제적인 경험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은행 여성 부행장과 만남을 통해 성공한 여성 멘토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대여고 학생들은 본점 20층에서 무등산 전망과 함께 티타임 시간을 갖고 임원실, 임원 접견실 등을 둘러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진로교육과 금융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

광주은행 정순자 부행장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폭넓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쏘울, 美 고령 운전자가 몰기 좋은차 3위

기아자동차 쏘울이 미국의 유력 소비자전문지가 뽑은 ‘고령 운전자에 몰기 좋은차’ 톱 3에 올랐다.

7일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고령 운전자에 위한 상위 25개 신차’ 평가에 따르면 쏘울은 스바루 포레스터와 아우트백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컨슈머 리포트는 ▲ 운전석 접근성 ▲ 시야 확보수준 ▲ 조작 용이성 ▲ 헤드라이트 밝기 ▲ 첨단 안전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첨단 안전기술은 백업 카메라·자동긴급제동장치(AEB)·전방충돌방지보조(FCW)·사각지대경보시스템(BSW) 등이

해당하며 항목별 가중치는 다르게 적용됐다. 쏘울은 평가 항목 가운데 운전석 접근성과 조작 용이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운전석 문턱이 낮고 차 문이 넓게 열려 고령 운전자가 자리에 앉기 편하면서 기어, 라디오, 에어컨 등 차내 탑재된 장치를 조작하기도 쉽다는 의미다.

현대·기아 차량은 이번 평가의 상위 25개 차종 중 쏘울을 비롯해 총 6개가 포함됐다. 기아차 스포티지는 운전석 접근성과 조작 용이성, 헤드라이트 밝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5위에 올랐다. 현대차 쏘나타는 13위, 기아차 포르테와 쏘렌토는 19위와 22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으며 현대차 쏘타페는 24위, 투싼은 25위를 차지했다. 이들 차종은 조작 용이성 부문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